

익산 전통시장, '문화 시장' 탈바꿈

시, 중앙·매일·서동시장 등 9억2천만원 지원 야시장 문화 콘텐츠 강화·테마파크형 시장 조성

익산 전통시장 3곳이 단순 전통시장의 틀을 깨고 이야기와 새로운 문화가 있는 '문화시장'으로 대대적인 변신에 나선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매일·서동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문화관광형시장에 2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중앙·매일·서동시장은 다양한 맛집과 의류특화시장이라는 특색 때문에 상권이 크게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원도심과 익산역 근처라는 접근성이 더해져 젊은 층 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많이 모이는 곳 중에 이야기기가 있는 공간이다.

이런 특성을 인정받아 해당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17억여 원을 지원받아 야시장과 푸드트럭, 다양한 문화사업 등을 추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써의 기초를 다져왔다.

익산 최초의 야시장을 기획·운영해 기존 주말 대비 방문객 300%, 매출이 200% 상승했을 뿐 아니라 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역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통시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대학과 연계해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 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고객층이 150% 늘었다.

이런 3년간의 사업 추진 결과는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로 재선정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중앙·매일·서동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2년 간 국비 4억 6천만 원을 포함해 총 9억 2천만 원(도비 9,200만 원 / 시비 3억 6,800만 원)을 지원받아 인근 관광객과 연계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 시장으로 조성한다.

우선 각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특색 있는 먹거리와 체험 풀리마켓 운영 등 독창적인 야시장 문화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해 문화체험 야시장으로써의 입지를 구축한다.

더불어 익산역과 연계해 지역 관광 자원을 돌아볼 수 있는 투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아티스트를 활용한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 등 테마파크형

시장으로 조성해 젊은 소비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다문화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인 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해 자생력을 키우고 동아리 활동 등으로 상인들의 자존감과 역량을 높여 적극적으로 친절한 상인들의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선정된 3곳 전통시장을 비롯해 앞으로 익산의 각 전통시장별로 특화요소를 개발하고 발굴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며 "전통시장을 고객들에게 이야기와 문화를 꽃피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보건소 이재희계장 부부의 날 기념 부부상을 수상했다.

군산시보건소 이재희계장, 부부상 수상

군산시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이재희 계장 부부가 지역 최초로 세계 부부의 날 기념 올해의 부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부부의 날 기념식에서 군산 엘소아청소년과 이재희 계장, 군산시 보건소 이재희 계장이 올해의 부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부부상은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화합과 사랑으로 자녀 교육에 성공하며 사회봉사 활동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모범부

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북에서 두 번째, 군산에서는 처음이다.

이희복, 이재희 부부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부부모임 확산에 기여했으며 어린이재단 및 노인요양원, 유니세프 등 다수의 후원단체에 30여년 간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또 17년간 전국부부가족마라톤 대회에 이웃 주민과 함께 참가해왔고 조직위원으로 가족 사랑과 화합을 키워나가기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 수출확대 지원 세미나

군산세관(세관장 윤인재)은 군산시와 공동으로 '군산항 활용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군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업체 외에 관세청, 광주본부세

관, 전북도, 군산시, 전북중기청, 군산해수청 등 정부기관과 선사 등 물류기업, 연구기관·대학교·관세사 등 관계자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각 기관들은 군산세관 개청 제120주년을 축하하고 군

산항을 활용한 수출확대를 위한 각계 지원정책 분석 및 관련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군산세관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전북 기업의 수출확대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수출입 통계를 활용한 수출지원

협업 약정서'를 체결했다.

윤인재 군산세관장은 "군산항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체 군산항을 관세청이 추진하는 수출물류단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서천군 충남도민 체육대회 성화 봉송 참여

군산시가 이웃도시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제7회 충남 도민체육대회의 성화 봉송에 참여했다.

성공을 기원했다. 이 날 참여는 이웃도시로서 상호 우호관계에 있다.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이번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양 시군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성화 봉송 구간은 동백대교 서천방면에 위치한 원수삼거리부터 장항읍사무소까지 총 900m에 이른다. 최성근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서천군의 번영을 기원하는 군산시민들의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양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섬유산업 상생발전 방향 모색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15일 시청 상 황실에서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섬유업계 기업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섬유업체 기업 대표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산업 붕괴, 염색, 편직 등 분야별 기업 대표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청년 노동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

비 부담 가중, 생산설비 노후화로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익산시 친환경 소재 등의 미래섬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익산상공회의소, 예코융합섬유연구원 유관 기관 관계자들도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함께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익산=장인천 기자

이상춘 경제관광국장은 "섬유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다 다각적이고 활발한 섬유업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2012년부터 섬유환경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섬유업체 노후 생산시설 및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원 사업 공고 후 섬유업체 15개 업체가 선정돼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경찰, 모범청소년을 위한 '2019 제3차 지원심사위원회' 개최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는 15일 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3차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내부위원 여성청소년과·과·계장, 학교전담경찰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서부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부 관장, 대한불교조계종 심곡사 정완 스님이 참석했다.

박현수 익산서장은 "경미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의 선도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에게도 실질적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익산경찰서는 15일 2019년 제3차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록 했다. 청소년들의 건전 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3.1운동 100주년 유물 시민참여 운동 전개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이 군산 3.5만세운동 정신계승을 위해 기증이 이루어졌다. 5월 한 달간 3.1운동 관련 유물에 대한 기증·기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유물 기증·기탁 참여로 진행했다.

3.1운동 기념관의 내실을 다지고 관람객에게 실질적 볼거리제공을 위해 기증·기탁 운동을 기획했다.

유물기증·기탁 대상은 국내 3.1운동 및 군산 3.5만세운동과 관련한 인물, 역사, 생활, 문화, 미술, 민속, 종

교를 비롯해 유물 자료 전반이다. 시는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선정된 유물에 대한 기증 절차를 거쳐 기증증서를 증명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기증·기탁 신청을 받아 왔다. 유물 사진을 군대역사박물관 사무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박물관관리과(☎ 454-787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대, 스승의 날 맞이 교육대 재직교수 초청 간담회

군산대학교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군산교육대학 재직 교수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청 교수들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군산대학교의 전신인 군산교육대학에 재직했던 분들이었다.

곽병선 총장은 "군산대학교가 현재

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기반을 닦아주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군산대학교의 지난 역사와 미래 비전들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조성환 교수는 "잊지 않고 초청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